

# OECD DAC 동향

(2015. 2. 16)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 I. Development Issue

1. 2014년도 OECD DAC 각료급회의(HLM) ('14.12.15-16)
2. 2013년도 기후금융 보고서

## II. DAC 회원국 동향

1. 영국 하원, DFID 개혁안 발표('15.01.26)
2. 일본 JICA, 페루 폐광산 환경사업 관련  
일본석유가스공사와 업무협약 체결('14.12.26)

## III. OECD DAC 2월 일정



# I. Development Issue

## 1. 2014 OECD DAC 각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 HLM) (14.12.15-16)

- ODA 적격기준 및 측정방식 변경
  - ODA 적격기준은 개도국의 소득수준별로 다변화하고, 측정방식은 순지출 방식에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
- 총공적개발지원(TOSD)\* 개념 도입
  - \*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OSD 개념 도입의 필요성은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차기 HLM에서 확정하기로 함
-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확대
  - 최근 ODA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ODA의 최빈국 지원 비중이 감소하는 소위 ‘원조의 역설’ 현상을 타개하고자,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

### 가. 배경

- OECD DAC는 UN과 국제원조사회가 추진 중인 Post-2015 개발 의제와 관련, 포괄적 개발재원 측정을 위해 2012년 HLM을 계기로 ODA를 비롯한 개발재원 측정방식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음
- 이번 HLM은 지난 2년 간 ODA 현대화를 비롯,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한 DAC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2015년 중 진행할 추가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나. 주요 내용

### (1) ODA 적격기준 및 측정방식 변경(2018년부터 도입)

#### ① ODA 적격기준 변경

- 1972년 도입된 ODA 적격기준\*이 現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원국별 위험프리미엄을 차등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10% 고정할인율 적용 시 최소증여율 25% 이상

- 단일 최소증여율 25% 이상 조건을 폐지하고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도입

(단, IMF·WB DSF의 최소증여율\*\* 위배시 ODA 불인정)

\* 상위중소득국 10%(6% 할인), 하위중소득국 15%(7% 할인), 최빈국·기타저소득국 45%(9% 할인)

\*\* IMF·WB의 채무건전성 관리체제(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DSF)에 적용되는 최소증여율로 5% 고정할인율로 할인

- 10% 고정할인율을 폐지하고 소득그룹별 차등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최빈국·기타 저소득국에 고양허성 개발재원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ODA 적격기준 변경

#### ② ODA 측정방식 변경

- 現 순지출(net-flow) 방식으로 양허성 차관에 대한 ODA 측정시 원금 상환액만큼 ODA 규모가 감소하므로, 원금 상환이 완료되면 해당 차관의 ODA 규모는 '0'으로 계산되는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현 순지출 방식에서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으로 ODA 측정방식 변경

\* 소득그룹별 할인율(상위중소득국 6%, 하위중소득국 7%, 최빈국 및 기타저소득국 9%)을 적용하여 원조의 증여 부문을 측정하고 이를 ODA로 산정  
(증여등가액 = 총지출액 x 증여율)

- 증여등가액 방식 적용 시 주요 유·무상원조 간 비교가 가능하고, 양허성이 큰(softer condition) 원조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ODA로 인정되어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재원 증가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됨

## (2)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D)

- 금번 HLM을 통해 ODA 이외 개발과 연관되는 폭넓은 공적재원을 측정하는 TOSD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본 개념이 ODA를 대체하지 않고 보충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도출
- 반면, TOSD의 구체적 범주, 공적 지원을 통해 조성된 민간 재원 및 개도국으로의 실질적 유입이 없는 개발재원의 TOSD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HLM에서 확정기로 합의
  - 한편, TOSD는 양허성 및 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총지출 기준으로 측정

## (3) 최빈국에 대한 ODA 확대

- 2011년 UN 최빈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ODA 확대 목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 ODA 대비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이 감소하는 ‘원조의 역설’ 현상 발생
  - \* 2020년까지 각 회원국 ODA/GNI의 0.15-0.20%를 최빈국에 지원
- 회원국별 최빈국에 대한 ODA/GNI 규모 현황과 2011년 UN 최빈국 정상회의 시 별도로 발표한 국별 공약 등을 감안, UN 목표를 일률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
- DAC 회원국 별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기보다는,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비중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고, DAC 회원국의 최빈국 지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 도달

## 다. 시사점

- ODA 재정의 등 주요 개발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로, 금년 7월 개최 예정인 제3차 UN개발채원총회에 대비한 DAC의 기여 및 신뢰도를 어느 정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나, 기타 미합의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올해 ODA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시 ODA 재정의에 따른 우리나라 ODA 규모에 미치는 영향과 유·무상 원조의 적절한 최빈국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함

## 2. 2013년도 기후금융 보고서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in 2013)

- 2013년 기후금융 규모는 총 US\$373억으로, 양자기후금융과 다자 기후금융을 각각 US\$230억, US\$143억 지원
  - DAC 회원국(29개) 중 일본(US\$73억), 독일(US\$40억)이 많이 지원하고, 한국은 US\$3억으로 13위를 차지
- 경제 인프라분야에 대한 지원(US\$153억)이 전체 기후금융의 66.7% 차지하였고, 분야별로는 교통 US\$73억, 에너지 US\$70억 順으로 지원
- 지역별로 아시아 40%, 아프리카 30% 順으로 지원

## 가. 배경

-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산화탄소 감소,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조달 필요성이 최근 크게 증대
- 이에, OECD는 기후금융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4년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의 양자·다자재원 (2013년 기준)에 대해 분석

## 나. 기후관련 개발재원 현황

□ '13년 기후금융 규모(승인액 기준)는 총 US\$373억

- 양자 기후금융과 다자 기후금융이 각각 US\$230억, US\$143억 차지

### 〈2013년 기후금융 지원 현황〉

(US\$억, 승인액 기준)

구 분	2013년	비중 (%)
총 기후금융 (A+B)	373	100.0
양자 기후금융 (A)	230	61.8
공적개발원조(ODA)	220	(양자 중 : 95.7)
기타공적자금(OOF)	10	(양자 중 : 4.3)
다자 기후금융 (B)	143	38.2
다자개발은행(MDB)	135	(다자 중 : 94.4)
세계환경기금(GEF)	8	(다자 중 : 5.6)

### (1) 양자 기후금융 지원 현황

□ 양자 기후금융은 리오마커(Rio Marker)\*가 표시된 양자 ODA와 OOF 사업을 분석

\*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공존을 목표로 한 환경관력협약(Rio Convention) 지원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마커(Marker)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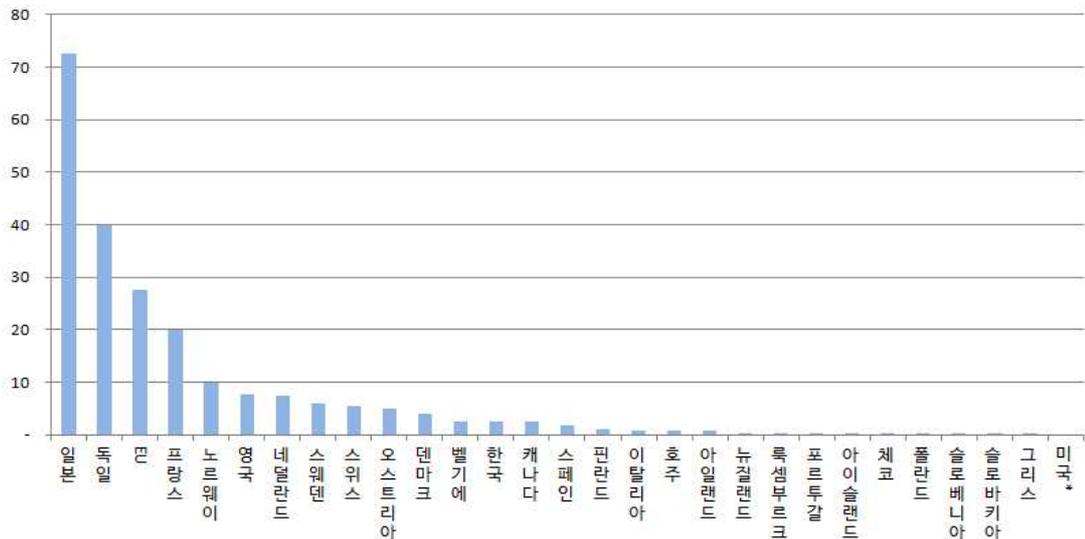
□ 양자 기후금융의 51%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만을 목적으로 하고, 30%는 적응(adaptation)\*만을 목적으로 하며 19%는 완화·적응 모두 관련된 것으로 파악

\*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완화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통해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적응은 이미 현실화된 이상기후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함

- 기후금융의 양자 ODA 원조는 전체 양자원조 중 95.7%인 U\$220억
- 2013년 DAC 회원국 중 기후관련 양자 ODA 상위 5개 국가는 일본(U\$73억), 독일(U\$40억), EU연합(U\$28억), 프랑스(U\$20억), 노르웨이(U\$10억)이며, 한국은 U\$3억으로 13위 기록

〈 DAC 회원국별 기후관련 양자ODA 현황 〉

(U\$억, 약정기준)



\* 미국의 경우, 데이터 수정 중으로 현재 수치 확인 불가

- 기후금융의 양자 OOF는 전체 양자원조 중 4.3%인 U\$10억

(2) 다자 기후금융 지원 현황

- 다자개발은행(MDB)과 세계환경기금(GEF)이 제공한 기후금융 규모는 총 U\$143억
- 세계은행 비중이 29.5%로 가장 크며, IFC 16.1%, EIB 14.5%, EBRD 11.2% 順으로 구성

## 〈 2013년 다자간 기후금융 지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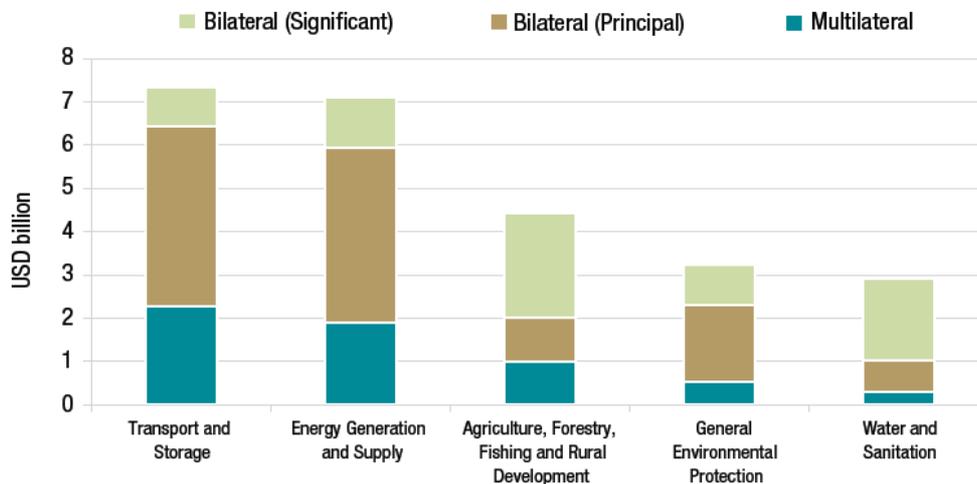
(US\$억, 약정기준)

기 관 명	2013년	비 중(%)
World Bank	42	29.5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3	16.1
European Investment Bank	21	14.5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6	11.2
African Development Bank	11	7.7
Asian Development Bank	11	7.7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1	7.7
Global Environment Facility	8	5.6
합 계	143	100.0

### 다. 분야별 현황

- 경제 인프라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체 기후금융의 66.7%인 US\$153억 차지
  - 분야별로는 교통 US\$73억, 에너지 US\$70억 順
  -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가 주목적인 **완화(mitigation)**사업은 교통과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 감소가 주목적인 **적응(adaptation)**사업은 수자원 및 위생분야에 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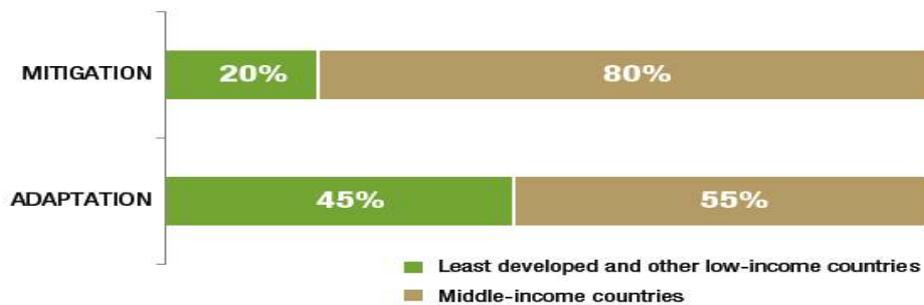
### 〈 분야별 기후관련 원조 현황 〉



## 라. 지역별 및 소득그룹별 현황

- (지역별) 기후금융 중 40%는 아시아, 30%는 아프리카로 지원
- (소득그룹별) 기후변화 완화사업의 80%가 중소득국에 지원되었으며, 적응사업 중 55%는 중소득국, 45%는 최빈국 앞으로 지원

〈 기후변화 완화·적응 사업 비중 〉



## 마. 시사점

- 이번 2013년도 기후금융 보고서는 DAC 회원국 및 국제기구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전체 기후금융 흐름의 정확한 분석 및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2015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등 Post-2015 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정상회의(9월, 뉴욕) 및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12월, 파리) 등이 예정되어 있어 기후금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II. DAC 회원국 동향

### 1. 영국 하원, DFID 개혁안 발표('15.01.26)

-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은 지난 1월 개발원조기관인 DFID의 개혁안(Beyond Aid)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FID는 독립된 부처로서 개발원조기관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정책일관성(Policy for Coherence)을 강화해야 함
-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세를 반영하여, 무역과 민간재원과 같이 ODA를 넘어선 자원(Beyond Aid)을 개발협력에 활용해야 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득국(MICs)의 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

## 2. 일본 JICA, 페루 폐광산 환경사업 관련 일본석유가스공사(JOGMEC)\*와 업무협약 체결('14.12.26)

\*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 일본 JICA는 페루 폐광산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JOGME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 착수 예정인 사전조사부터 협력하기로 합의
- JOGMEC는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페루에 자문관을 파견, 폐광산 오염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본 협약을 통해 더욱 활발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III. OECD DAC 2월 일정

 <p>February 16-18</p>	<p>환경네트워크 회의</p>
---	------------------